

자동차 안전운전 요령

□ 상황별 안전수칙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위험이 닥칠 경우가 많다. 운전실력을 과신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다음은 상황별 안전요령을 알아본다.

야간운전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시켜라

전조등, 미등, 차폭등을 켜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위험이 예견 되거나 상대방이 아직 나를 발견 못했으면 내 존재를 알려주어 위험을 제거하도록 한다.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라

운행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차의 흐름을 타는 운전은 해야 한다. 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유한 물결처럼 주위 차량의 흐름을 타야 한다. 그러나 일시 정지하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좌·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대비하여 적절한 의사표시를 한다.

물웅덩이 통과시

물위에서의 과속은 제동력 저하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줄기의 솟구침으로 엔진 고압선 부분에 습기가 스며들어 시동을 꺼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서행하는 것이 급선무다. 물위에서의 핸들 조작 및 브레이크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하며 습기 노면을 벗어날 때 급한 속도변화가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할 때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던 중, 직진을 하려고 할 때 좌회전 차선에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향지시등 신호를 넣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때는 직진신호인 경우가 많은데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즉, 다음 신호가 오게되면 직진 차량들은 서행하게 되는데 이때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회전 차량이 항상 손해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있을 때는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이러한 경우, 우회전 차량은 무리하게 끼어 들어서는 안되며 앞차가 우회전을 했다고 해서 뒤따라 우회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에 책임을 묻게 된다.

모랫길이나 자갈길을 주행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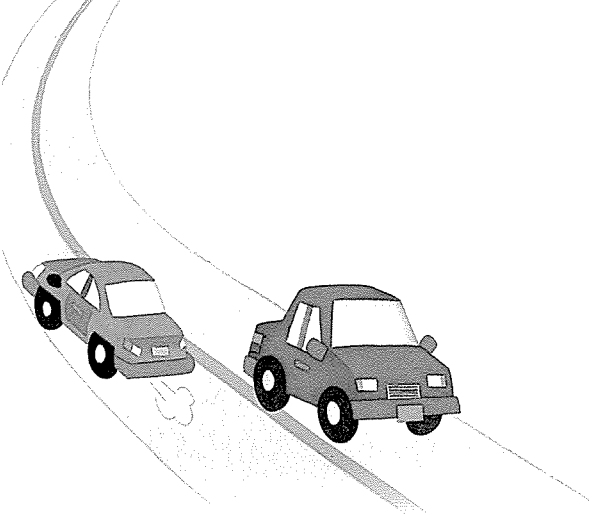
노면이 안 좋은 상태, 즉 모래나 자갈 또는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미끄러지게 된다. 이때 브레이크를 놓으면 좌·우로 흔들리던 차가 안정이 되는데, 핸들 방향은 진행하려는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려야 한다.

이상 기후에서의 운전

자동차 운전은 항상 좋은 날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안개가 끼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시계장애 및 미끄러짐 현상이 돌발할 수 있는 바, 이럴 때 운전자는 감속 운행하면서 급 조향이나 급 브레이크 등을 피한다.

빗길 주행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쥐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핸들을 쥐어야 할 경우 미리 엔진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페달로 차량속도를 낮추면서 유연하게 핸들조작을 해야 한다. 특히 젖은 노면에 진흙이 깔려있는



길은 다른 곳보다 미끄러워 브레이크를 걸기만 해도 미끄러지게 된다.

많은 비가 내리면 시계가 매우 나빠 와이퍼만으로는 시계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히터를 가동하여 디프로스터를 사용하고 필요 시 에어컨을 켜서 습기를 제거한다. 산간도로는 길 가장자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자리 쪽으로는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개속에서의 주행

안개가 끼었을 때는 시계가 아주 좁아지므로 속도를 낮추고 주행한다. 비록 주간이더라도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서 자신의 존재를 후속 차에 알려야 하며 안개가 아주 짙어 전조등을 켜도 전방이 더 안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차폭등이나 안개등을 반드시 켜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 마주 오는 차나 앞차 또는 후속 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차선 경계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 가드레일, 앞차의 미등을 가늠하여 주행하도록 한다.

눈길주행

눈이 쌓여 있거나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차가 미끄러지고 공회전 하기가 쉬우므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사용한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대비가 없을 경우 응급대책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면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눈길 주행 시 급정지, 끼어들기, 급 핸들 조작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앞차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운전 중 졸음을 방지법

한 순간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다. 졸음운전을 막는 기본적인 요령 몇 가지를 알아본다.

1. 운전 중에는 자주 유리창을 활짝 열도록 한다.

공기 중의 산소가 부족하면 졸립지도 않은데 하품이 나오게 된다. 에어컨 사용으로 창을 닫아둔 채 바깥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잠이 오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때때로 창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넣도록 한다.

2. 박하가 들어 있는 캔디나 껌을 씹는다.

음식을 씹으면 관자놀이 근육의 활동이 대뇌피질을 자극하게 되어 졸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손가락에는 미세한 근육이 많아서 손가락 끝을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게 된다.

핸들을 쥐고있을 때,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핸들에 얹은 채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펴거나 오므리면서 손가락 운동을 가볍게 하면 좋다.


4.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을 교대로 하든가 또는 운전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좋다.

5. 휴식을 취할 경우 밖에 나가 크게 심호흡을 하거나 기지개를 펴도록 하고 차에 손을 대고 앞으로 굽혔다 펴는 운동을 반복하면 효과적이다. 기분전환 외에도 운동 중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면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6. 눈에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가 정차 시 수시로 기지개를 켜다.

7.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단시간이라도 좋으므로 자주 휴식하는 편이 피로가 훨씬 덜한다.

8.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다.

9. 운전 중에 졸음이 오게 되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에 세우고 단 10분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자료제공 : www.mando.com)